

#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진짜로 믿으세요!

29면에서 계속

되면 그냥 훌쩍 벗어진다 이겁니다. 내 몸에도 착이 없고 어떠한 물질에도 착이 없고 아무것에도 착이 없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아, 쓰는 건 쓰지 왜 버리니까. 버리지 않아도 착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다 변질이 되고, 물질을 새 거 사다 놓으면 나중에 헐어서 버리게 되고 다시 바꾸게 되는 건데 구태여 거기다가 착을 둘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쓰는 대로 써라 이겁니다. 착을 두지 말고, 금은보화를 갖다가 장속에도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 착 둘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공했는데, 자기도 변질이 되는데 거기 그렇게 착을 둘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놓고 관리인으로서 그냥 쓸 뿐이지.

아이구, 이런 걸 놓고 사니까 좋고 저런 걸 놓고

생(生)이요, 공심(空心)이요, 바로 공체(空體)요, 공용(供用)이요, 공식화(供食)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 왜 저에게는 돈이 붙지 않아요?

**문**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왜 저에게는 돈이 붙지를 않고 나가지만 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너무 쪼들리게 사는 것은 몸도 마음도 공색해지는 것 같아서요.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는 몸뚱이도 다 놓고 갑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 래, 돈은 많고 그러니까 마누라 셋을 더 얻었던 말

그런데 첫째 마누라한테 그 말을 하니깐 '여보, 당신이 나를 등한시하고 본체만체했어. 당신이 본체만체하건 말건 그렇게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본체만체했어도 같이 다니게 같이 있었던 거는 생명과 그 본별, 즉 말하자면 의식이라는 얘깁니다. 이 육체와 같이 나로 인해서 당신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를 등한시는 했었지만 그렇게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비유냐 하면 둘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하고, 셋째 마누라는 돈을 말하고 넷째 마누라는 자식들을 말한 거죠. 자식들이 뭐 화장터 밖에 더 갑니까? 첫째 마누라는 내 주인공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고 또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대신 아파 줄 놈도 없고 대신 똥 누어 줄 놈도 없고, 또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잡자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어요. 이 다섯 가지는 누구라도 대신 못해 줘요.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느 편가 제가 아침 공양을 하지 않고서 어디를 가는데 시장기가 드니까 꼴이 아파요. '야, 꼴이 아프구나! 꼴이 안 아파야지.' 하고 쓰다듬어 주는 이 고마움! 여러분은 그 고마움을 모르죠? 내 손이, 내 마음이 나를 위한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리 부부지간에 절친하다 못해 천하없어도, 부모자식 지간이라고 해도, 호너 호부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자기한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는 말 못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응, 그래, 그래, 참 잘한다.' 하고 말하거든요. 모든 게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능력을 기르면 돈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파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든 부자들 탐심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억만 냥을 내가 지고 있어도 관리인이지 그거를 탐착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니까 돈이 자꾸 오죠.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다면 오지만 자꾸 쫓아가면 자꾸 달아나가요. 이상한 마음들이죠, 모두.

그러니 여러분이 낚시질을 해도 좀 잡히게 해가지 마음을 조금하게 내면 고기가 낚시밥을 먹지를 않아요. 조금함이 없으면 인내 있고 믿음직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가 공작이라면 그 공작에 공작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로 거기서 세세생생에, 율해만 사는 게 아니라 내년도, 그 공씨로 인해서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은 제가 없어서 공씨가 팔씨도 될 수 있고 팔씨가 공씨도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 그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각하면 생각 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사니까 좋고 우린 이렇게 땅을 가졌으니까 좋고, 이런 돈을 가졌으니까 좋고 권리가 좋으니까 좋고... 다 이런 거품과 같은 겁니다. 거품, 한순간의 거품이예요. 그 거품을 알았다면 우리가 한순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다운, 인간의 참이라는 걸 알고 나갈 때 비로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일일이 속여 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임을 받고 속임을 주고 하니까 남한테도 속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진실하게 믿어야 하나.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 찾은 권리도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엄연히 주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들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진짜로 믿으세요.

항상 얘기했듯이 싸이 뿌리를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남이 믿어라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겁니까, 네? 자기 중성(中性)을 진짜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 누고 밥 먹고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가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

입니다. 그래서 마누라 넷과 살다가 둘째 마누라 더러 그랬죠. '여보! 당신, 나 가는 데 같이 갈 수 없겠소?' 하니깐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난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셋째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따르지 않더라고요. 넷째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화장터까지만 가 주고 또 묘지를 쓸 것 같으면 묘지 쓰는 데까지 내가 가 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마누라 셋한테 다 물어봐도 그러니, 둘째 마누라더러 그랬죠. '야, 세상에! 내가 너를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히고,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히고, 아프면 아픈 대로 쓰다듬어 주고 약을 먹고, 또 배고프면 밥을 주고 이랬는데도 나를 따라가지 않으니 이 허무한 마음은 어디다 비할 수가 없다.' 하면서 셋째 마누라더러도 그랬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벌이다가 그렇게 주었건만, 세상에 내가 갈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느냐?' 하니깐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지 내가 당신이 좋아서 따라다니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6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빙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찰서원
  - 선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한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법인
  - 12. 삼업
  - 13. 삼학
  - 14. 신도오계
  - 15. 사성제
  - 16. 사설법
  - 17. 십이인연
  - 18. 육바라밀
  - 19. 팔정도
  -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일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4, 8219  
국내 · 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